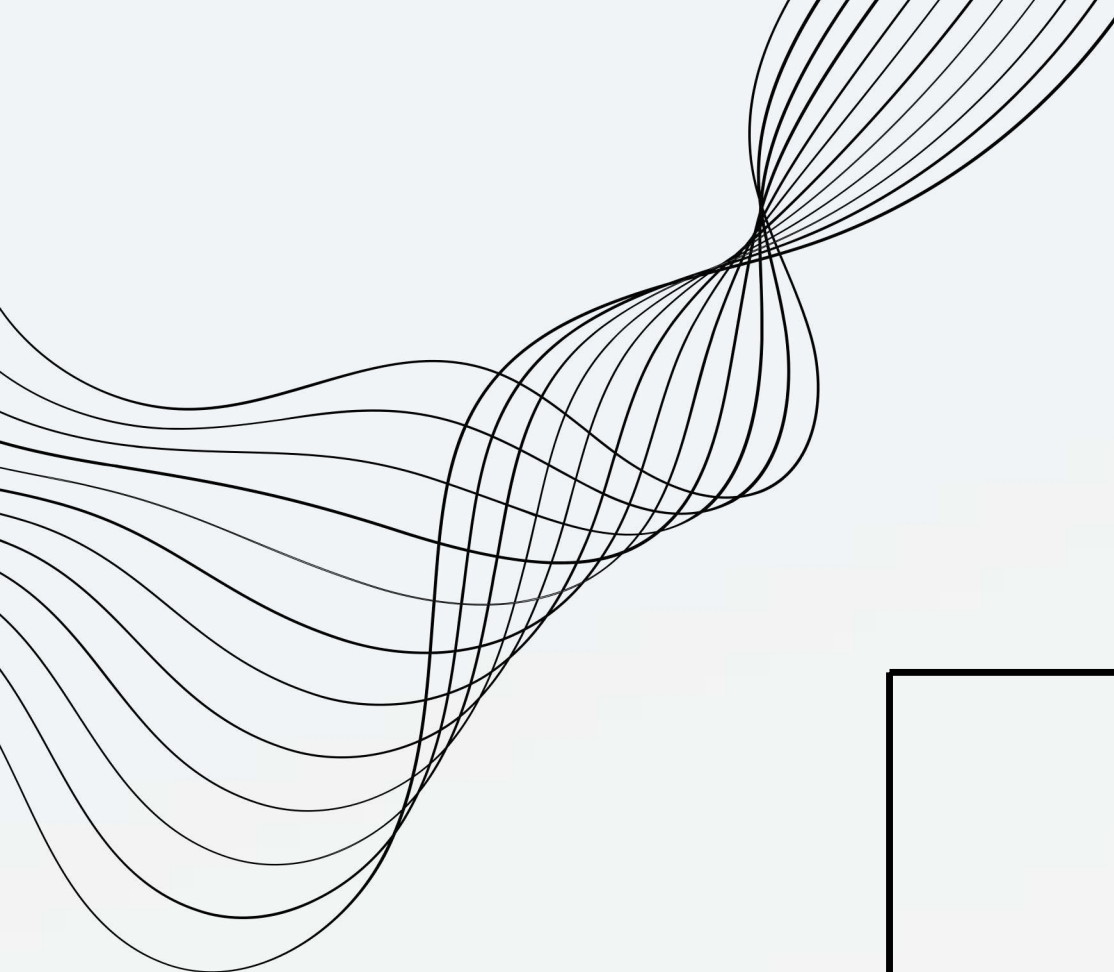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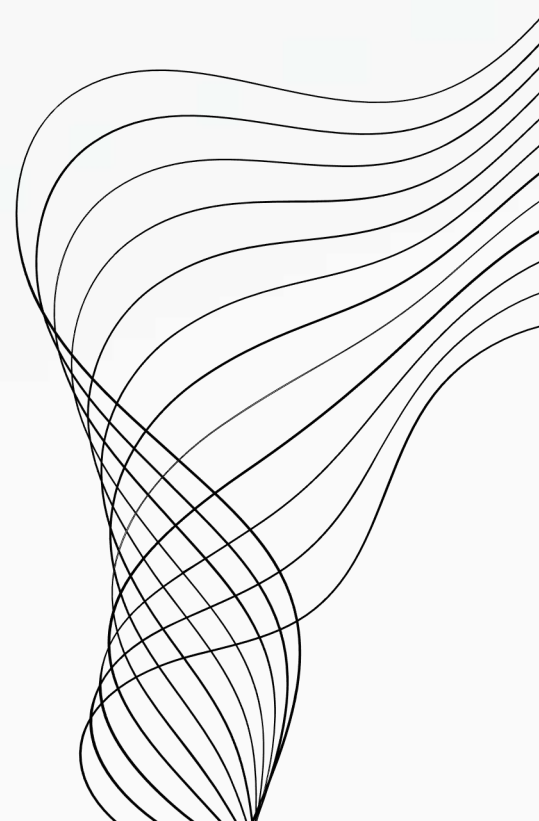




2023-2

사 회 혁 신
질 적 연 구 방 법 론 및 실 습



Today

01

체크인

02

지난 수업 리뷰 – 사회혁신가의 여정과 역량 모델링

03

연구의 인사이트 – 사회혁신가의 여정을 중심으로

04

누구를 인터뷰할까?

05

체크아웃

CHECK-IN

Q.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1000만원이 주어진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시도해보고 싶나요?

- 단 사적인 목적(쇼핑, 여행, 저축이 아닌 프로젝트 지원)은 제외하고
생각해봅니다.
- 올 해 안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세요.
- 시간의 제약이 없다고 생각하고 상상해주세요.
- 간단하게라도 예산을 짜 보세요.

연구자의 [], 진짜 이야기 끌어내기

사회혁신가에게 듣다, 그룹 워크숍

2020.08.24
진저티프로젝트

그룹 워크숍 기획 의도

- 사회혁신 생태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이들이 좋은 질문을 통해 일의 현장과 자기 자신을 회고해볼 수 있도록 함.
- 일의 현장을 넘어 개인들이 연결되고, 지지와 공감을 통해 Empowering 될 수 있도록.
- 각기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비슷한 삶의 지향점을 가진 이들이 일회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깊은 대화가 나누어질 수 있을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



그룹 워크숍 주요 질문

- 본인은 어떻게 사회혁신 생태계에 들어오게 되었나?
- 본인은 일을 하며 언제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끼는가?
- 본인은 일을 하며 어떻게 성장해왔는가?
- 본인은 일을 하며 언제 위기를 맞았는가? 어떤 위기였나?
- 본인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나?
- 본인은 자신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나?

그룹 워크숍 환경

환대 받는 느낌을 전달하며
마음을 열 수 있는
심리적 안전함을 제공한다

자신 안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열어젖힐 수 있는
좋은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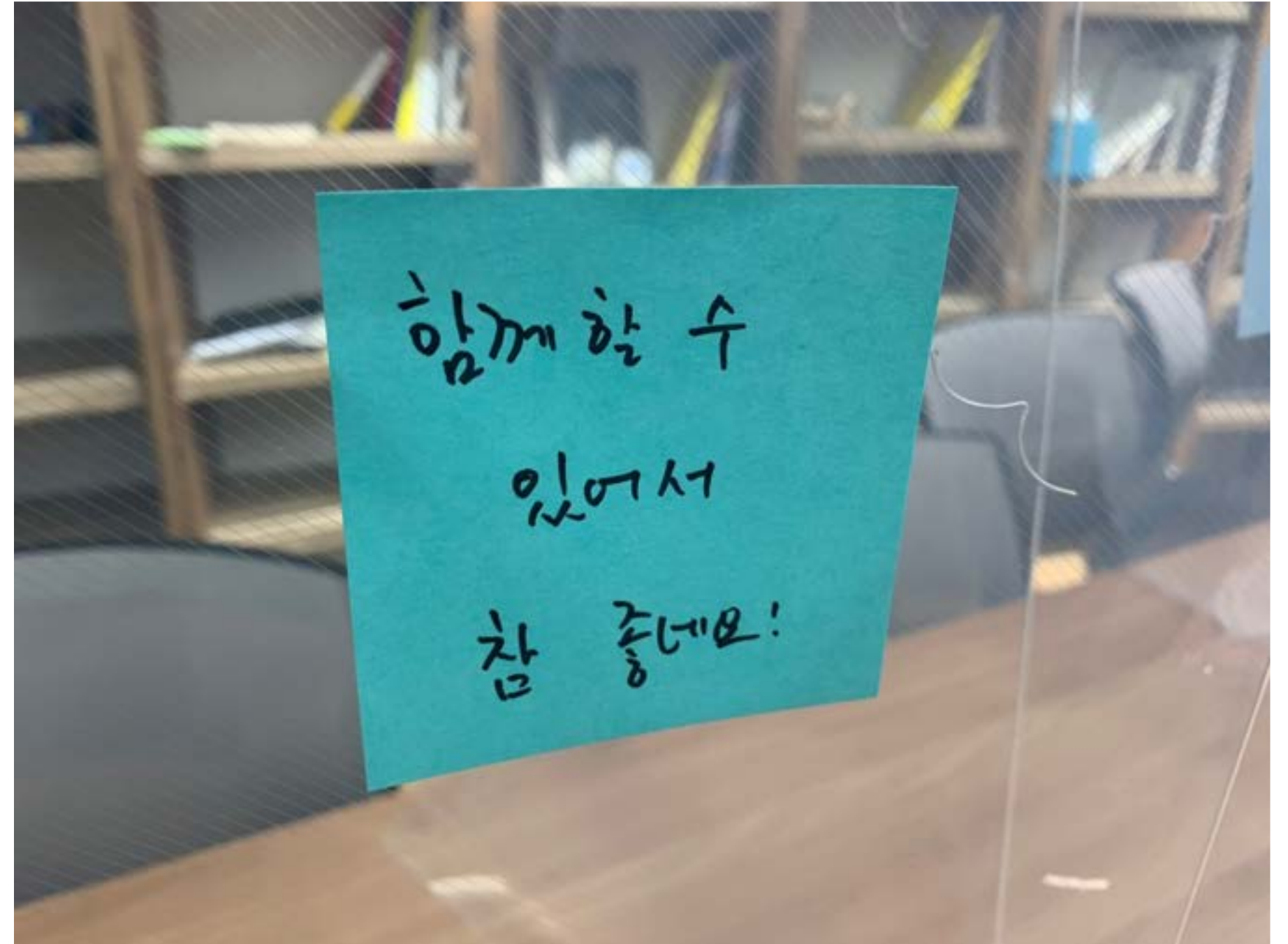
이해관계는 없지만,
일과 가치에 대한
진정성이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

그룹 워크숍 참여자 구성

- A : 사단법인 CAMP 팀장, 여
- B : 누구나데이터 팀장, 남6
- C : &Pathy 대표, 여
- D : 하자센터 목공방지기, 남
- E : 임팩트리서치랩 연구원, 남
- F : 열매나눔재단, 여,
- G : 아산나눔재단 사회혁신팀 매니저, 남
- H :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꿈지락발전소, 여

- 그룹 퍼실리테이터 : 김OO(진저티프로젝트), 고OO(해피빈)

그룹 워크숍 '합정의 밤' 현장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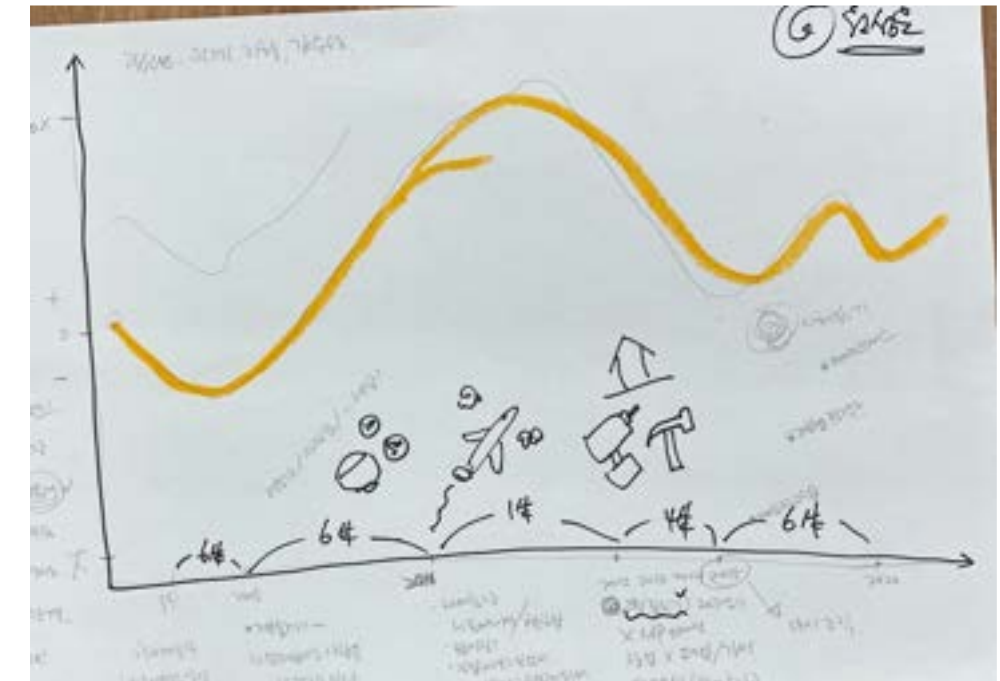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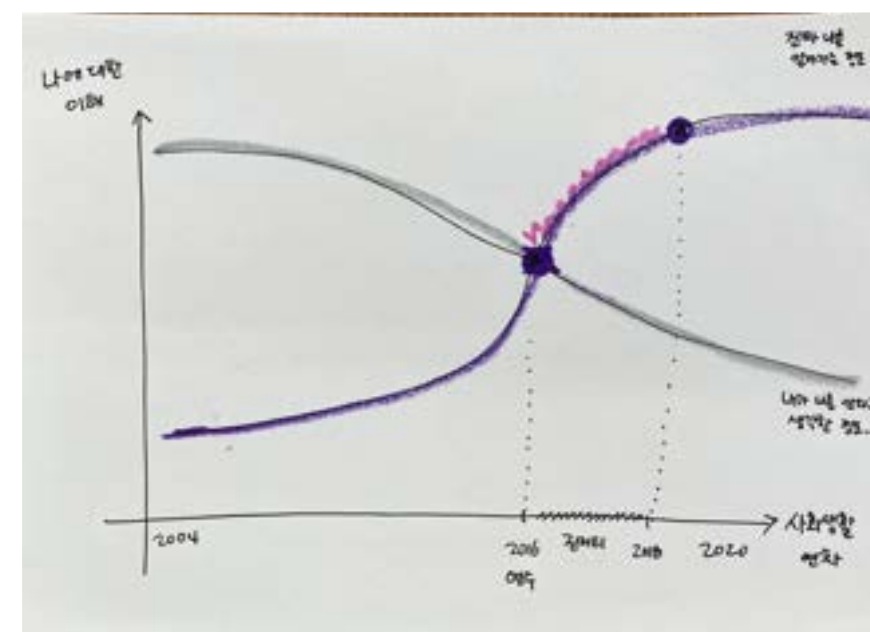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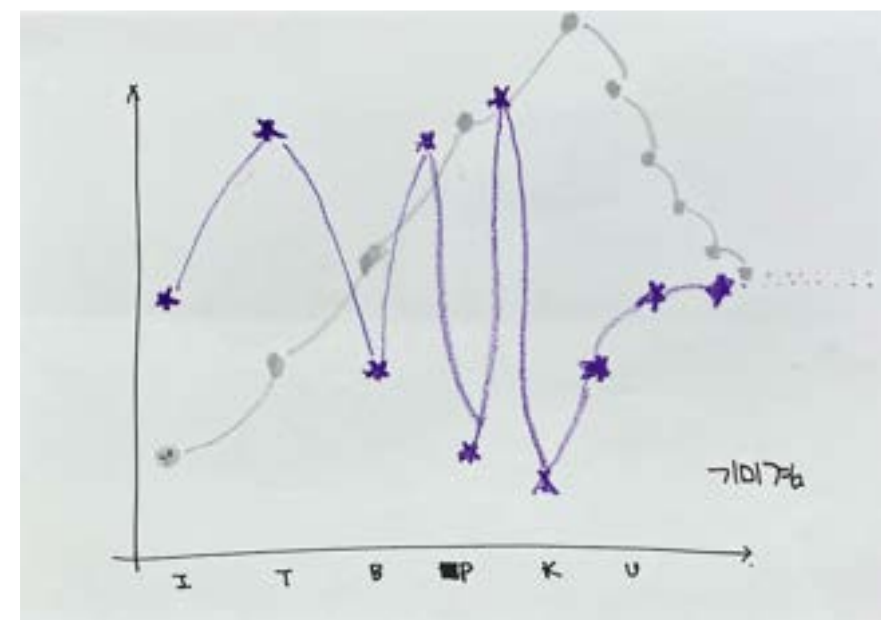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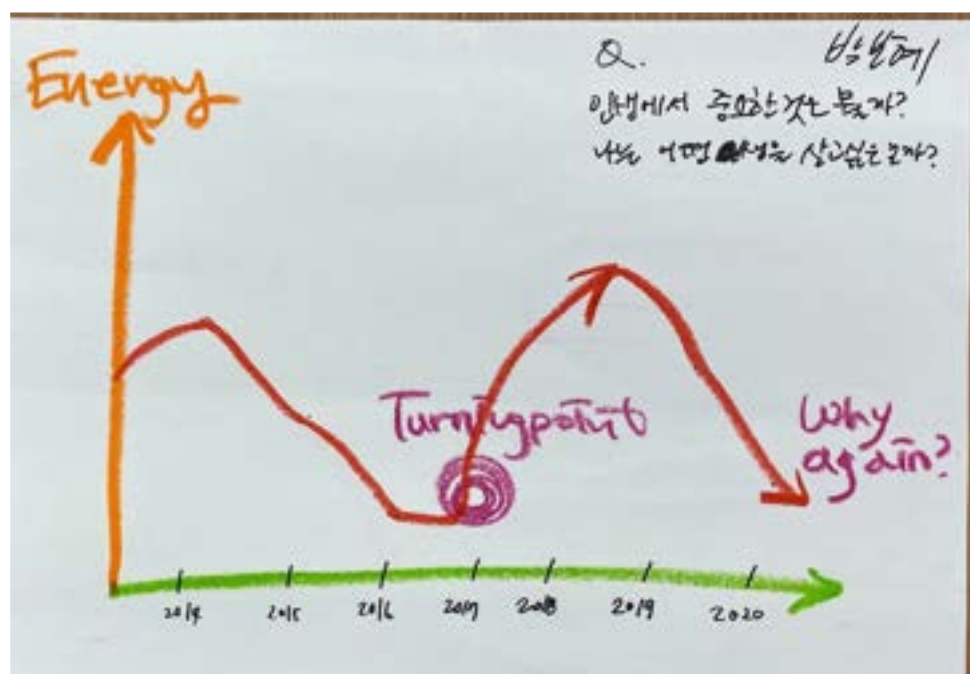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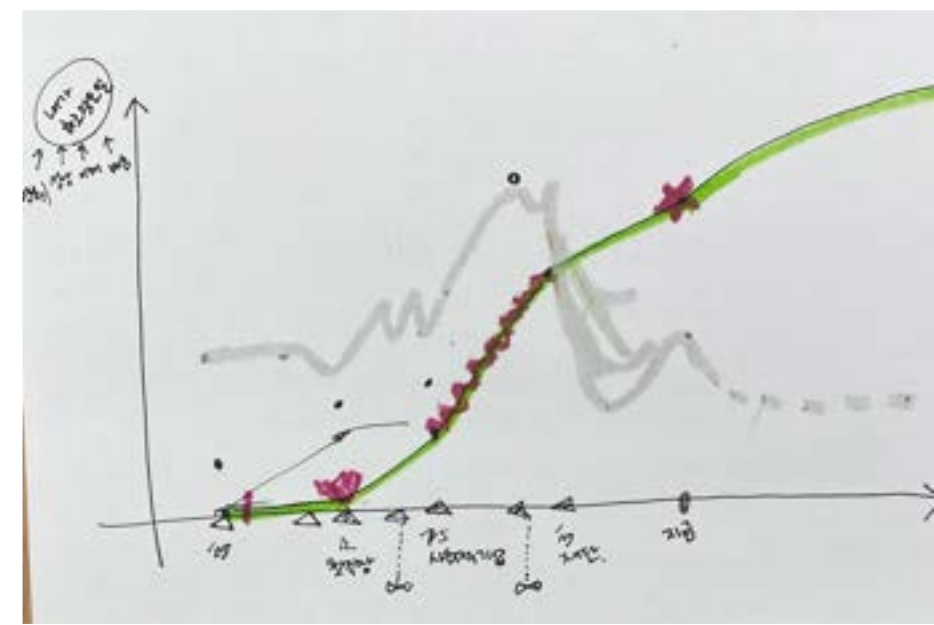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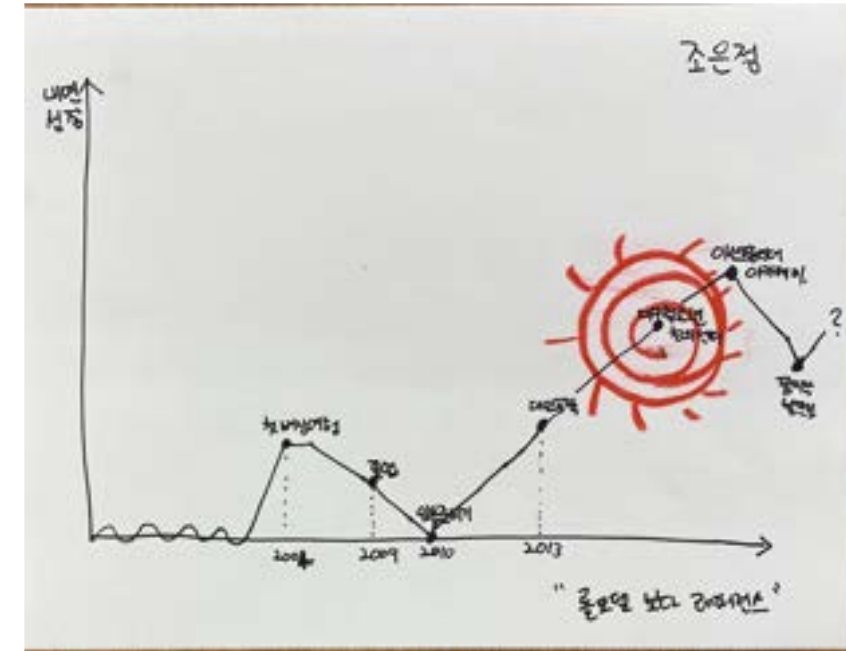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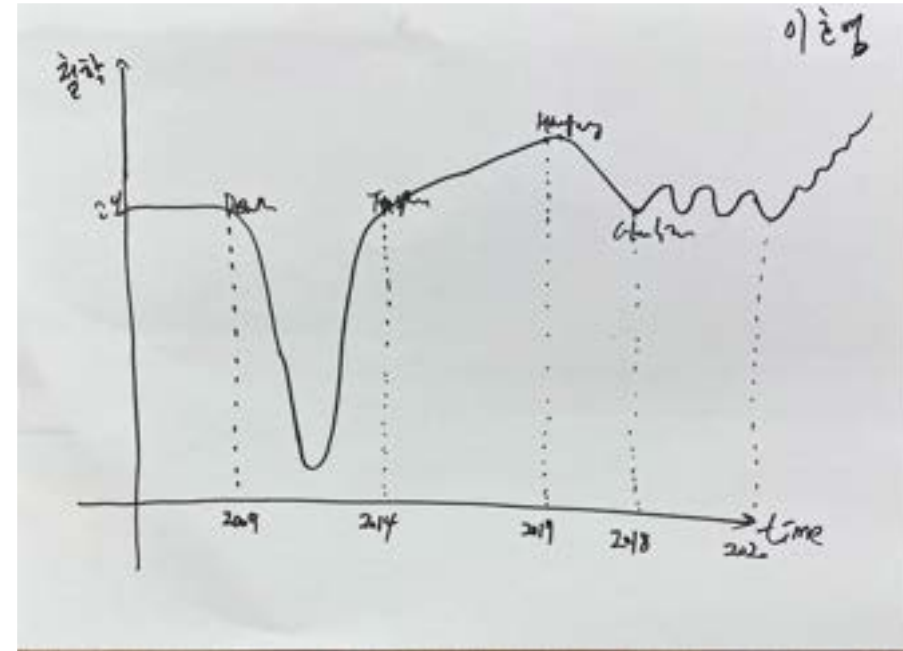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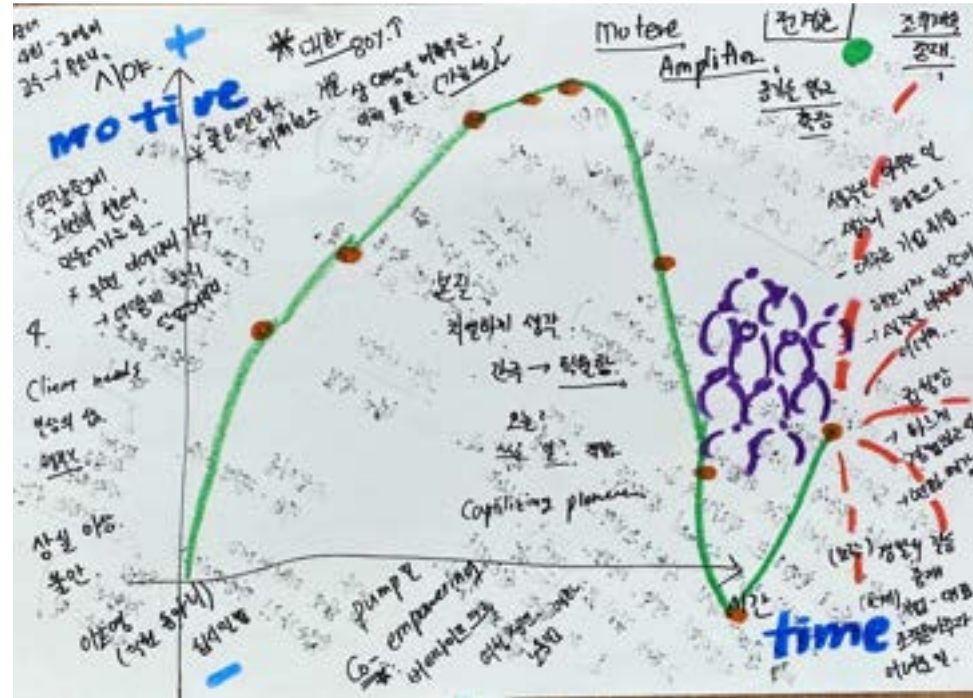
그룹 워크숍 - 어제를 돌아보다

어제를 돌아보다: 성장 그래프

우리 모두에게 우리만의 스토리와 장면이 있죠.
당신은 언제, 어떻게 성장했나요?

가로축과 세로축의 기준은 자신이 직접 정해보세요.
기준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성장그래프 - 언제 성장했다고 느끼는가?



- 성장그래프 – 언제 성장했다고 느끼는가?

- 시야가 넓혀지는 느낌
- 철학,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 에너지
- 내적 성장
- 나에 대한 이해
-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정도와 불안함
- 에너지원이 되는 습질과 경험
- 에너지, 업무스킬
- 에너지

“철학은 내가 이 일을 왜하는가에 대한 철학을 뜻한다. 소셜섹터기업을 운영하며 일함과 동시에 철학이 강화되고 발전되는 것을 경험했다. 교직원으로도 잠시 일했었는데 남의 조직에서 지식적으로 일하다 보니 철학이 낮아지는 걸 느꼈다. 이 때도 내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래프로 담았다. 또 다른 색은 불안함이다. 백화점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뒤늦게 자아를 찾고 내가 뭘하고 싶은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일을 그만두고 가치를 쫓아야겠다 해서, 개발협력 대학원을 갔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다 생각해서 스터디모임을 했는데 그게 창업으로 이어졌다. 그 때 불안감이 최고조였다. 한계를 느낄 때 도전이 되고, 불안감도 느끼지만 동시에 성장도 많이 했다.”

성장그래프 - 언제, 어떤 위기를 겪었는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내가 가진 밑 빠진 독에 내가 열심히 빨리 자주 채우면 어느 정도 가능성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다. 감히 초보라 했던 오만한 생각 이었다. 갈수록 독의 깊이 크기 커지고. 내가 잠겨진 바가지 커지는데 그러면서도 끝이 안 보인다는 생각이 이어졌다. 지금은 채워 오르지 않아도 어느 수준 유지 되는 정도인 것 같다. 물을 꺼내는 못 써도 그 안의 개구리 같은 사람들, 동료들 보고 위로를 얻는다. 그러다 또 다시 어느 순간 갈라진 독 발견한 순간이 오고 바가지 어딴지 두리번 거리는 순간들이 여전히 있다.”

“마리몬드를 들어갔고, 그 때 당시 지하 단칸방에서 4명이 시작을 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 취해있었다. 하지만 에너지는 다운이 되어 가고 있었다. 최대 피크를 찍었을 때, 2017년 2월에 마리몬드를 그만두게 되었다. 나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모든 것들이 오케이가 되었다. 좋은 일을 하니까 면죄부가 생기는 느낌이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일까? 생각하고, 매일 새벽에 퇴근하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왜 살지?(죽고싶다는 생각이 아닌 인생의 이유)’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주변의 엄청난 반대를 뚫고 마리몬드에서 일했다. 그런데도 이 삶에서 행복함을 못 느끼면 나는 어디로 가야할까? 하는 절망감이 컸다.”

“기아대책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비전 미션을 발견하게 되었다. 비전 미션이 정말 가슴이 사무치도록 일을 했다. 마치 태양을 향해 달려가는 것 처럼 일하다 보니 조금은 불이 타서 이직을 하게 되었다. 이직을 했었지만 한 조직에 오래 있으면서 사람이 갈리는 것 같은 도돌이표 같은 순간들이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 하는 순간이 있었다. 정신과 상담을 받는 정도의 과로와 여러 이슈들로 땅을 치면서 퇴직을 했다.”

그룹 워크숍 - 오늘을 나누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과 역할에 대한 이름을 만들어주세요.
그 이름을 감당하며 느끼는 한계나 어려움도 있을까요?



자신의 일, 역할에 이름 붙여보기

- **Empowered Pump.** 요즘은 펌프질을 잘 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임파워링 하면서 저도 임파워링 하는 감각을 익히고 있다
- **Blender.** 청년들이 사회혁신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마치 커피콩 같다. 각자 어떤 대륙에서 왔는지에 따라 풍기는 향기와 맛이 다르다. 그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했다. 이들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볶고, 블렌딩을 해야 좋을까를 생각한다.
- **생각을 바꾸는 사람.** 사업할 때, 생활에 기여하는 것이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했다. 늘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왔다.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부합하는 행동이나 프로젝트를 함께 하며 생각이 강화됐다. 생각이나 관점은 늘 변하기 때문에 러닝 바이 액션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하는 일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시민의식의 성장과 공동체의 강화라고 생각한다.
- **공감과 소통을 연결시키는 사람 .** 타인과 단절된 것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을 한다.
- **통역하고 해석해 주는 사람.** 만나는 청소년들 중에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 의사표현을 다르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런 친구들이 내 눈에 읽힐 때가 있다. 배척하거나 힘들어하는 선생님이나 학교에게 아이 마음은 어떻다 라는 것을 전달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생각하는 것은 이렇다 라고 통역한다. 센터 내에서도 소통과 일이 힘든 선생님들을 위해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Alternative to AI.** 지금 있는 회사나 서비스 특성 상 빨리 이슈 대응하고, 로봇처럼 앉아서 일하는 역할이다. 이건 내가 아니어도 쉽게 대체 될 수 있고, AI가 개발 되면 내 자리도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씁쓸하다.
- **연결자.** 스스로 하는 일이 연결이라 생각하고 하는 일이 그렇다. 한 손에는 사회문제와 수혜자, 한쪽에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게 나의 일이다.
-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 같다. 국제개발 일이 끝이 없다. 한편으로는 슬픈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게 현실이다. 대신 그 독 안에서 행복해하는 개구리를 보고싶다. 그리고 나랑 같이 물 부어줄 바가지 든 사람 찾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다.
- **배 나온 채굴꾼.** 좋은 것 캐내고 발굴하고 얻어내는 것들을 하고 싶은데. 갈 수록 배가 나오다. 나온 배 안에는 나를 무겁게 만드는 여러가지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의 몸을 무겁게 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룹 워크숍 - 내일을 그리다

함께 대화하기

지금 가장 내 눈에 띄는, 내 마음을 괴롭히는 사회 이슈가 있나요?

왜 그 이슈에 자꾸 마음이 갈까요?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나요?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

“부동산 얘기 많고 정책 발표에 공급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왜 내집, 네집은 없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로 체류공간에 대한 다양성이 부족해지면서 공간이 눈에 들어온다. 부동산이 부의 축적이나 자본의 의미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데, 공간 자체에 대해 회자되는 게 없어서 아쉽다. **내가 있는 공간은 왜 좁은가. 왜 더 넓은 공간에 더 많은 사람있지 못할까.** 내가 뭘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 들지 않긴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멋진 것 같은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전인류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엄마는 내가 결혼하면 어떻게 혼자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가난한 독거노인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란 생각이 이어졌다. **익명의 한 노인을 돕는다는게 우리 어머니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일하며 살고싶다.**”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모든 모습 속에 제가 있었다. 나를 치유하는 경험이었다.** 이 당시 자존감을 회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보다는, 내가 행복함을 느꼈다.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

“**일자리 문제에 항상 많이 생각하게 된다. 왜 마음이 가나면 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단순작업 뿐만아니라 고도화되는 작업도 대체되는 것이 언젠가는 일어날 텐데, 사회에서 생산성으로 나의 가치가 없어질 때 나는 삶을 어떻게 영위해가지? 하는 생각도 든다. 비영리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문제가 커지는 것 보다도, 새롭게 변화될 사회문제가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시민사회단체 사회 속에서의 역할과 비영리조직에서 대상으로 하는 수혜자들의 범위에도 영향을 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방청년 이슈에 대해 이야기 했다. 살면서 불평등한 경험을 한 것들로 민감도를 갖게 되지 않나. 나도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도 집의 불편함과 서울의 답답함을 안고 여기 있어야 한다. 움직이고 싶으나 아직 움직여지지 않은 환경들이 아쉽다. **지방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 만들 수 없을까. 그걸 빌미로 나도 탈출 하고 싶다.** 지역에 있는 공동체나 어른들 찾아서 좋은 플랫폼이나 공간 만들어보고 싶다.”

Next Step

- 온라인 서베이
 - 그룹 워크숍의 질문을 온라인에 맞게 재구성
 - 질문을 받는 사람의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에 맞는 질문으로 구성
(사회혁신 생태계 입문/ 초기/ 집중/ 성숙)
 - 아산 교육 프로그램(아산 프론티어, 아산 프론티어 유스 등)의 참여자에게 서베이 전달
 - 5~70명 내외 예상

우리도 한 번 해볼까요?

온라인 서베이 참여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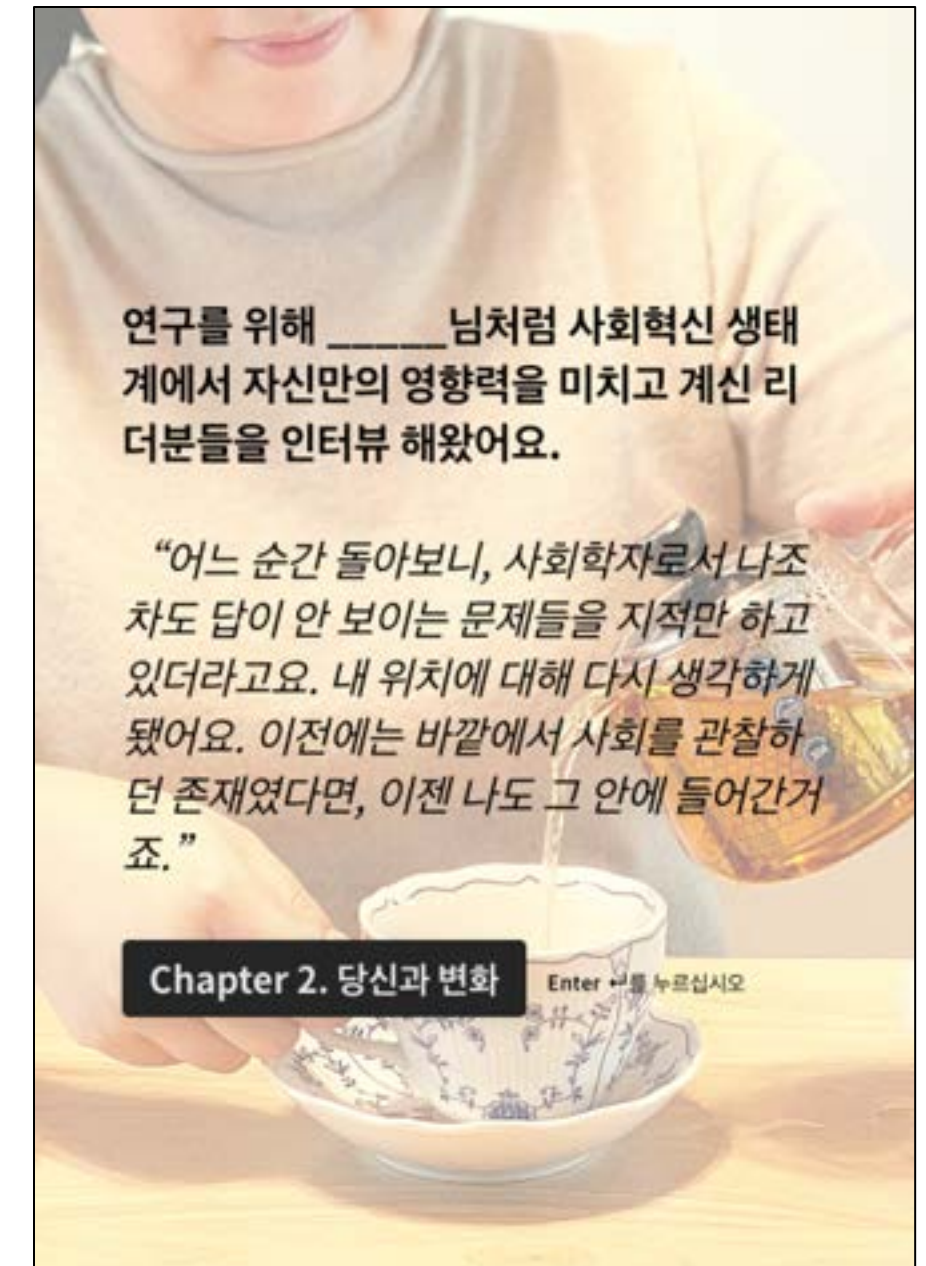




<1:1 초대 이메일>



<온라인 서베이 화면>





Entry_아산 사회혁신가 연구 온라인 서베이 응답



파일 수정 보기 삽입 서식 데이터 도구 확장 프로그램 도움말



공유



100%



보기 전용



A2 김소진

	A	B	C	D	E	F	G	H	I	J	K	L
1								된 직장	직업만으		*마지막으로,* 는 반드시 '사람'이	
2		를 위해, 성함을 알려*님이 처음 '사회혁신'영향을 받으셨군요.05-bd3b-7a36b1}}**님은 언제 자신0ff21d}}**님이 요>4}}** 문제에 마음(b-7a36b53ff21d}서 최근 3년 이내 '중에 왜 그 장면을 그리는 이 사람들, '시ff21d}}**님의 <										
3	2	교내 활동 (학생회, 저널리즘 학과에 입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저 또한 시야가 확장	여성, 청년, 복지 /	여성 주제는 제가 사	빈틈을 채우는 사람	온라인에서 진행된	온라인의 익명성의	'안전망'이라고 생	ㅎㅎㅎ 너무 즐거	
4	3	TV나 신문 등 언론	처음 아이폰을 쓰	성인이 되고 시간	과거의 내 모습이	여성, 주거 문제 /	좀 더 요즘 피부로	안주하지 않는 창	저도 비슷할 것 같	주변 상황이나 환	저는 '관찰'이라고	평소 구체적으로
5	4	소셜 미디어	2016년에 강남역	세상 보는 시야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정	여성, 복지 / 사회	여성, 사회안전망,	공이 하나면 심어	시민 건물주 : 해	공간에 대한 중요	성 스스로 해결하는
6	5	교내 활동 (학생회, 대학교 3학년때 '기	수업을 통해 처음	비슷한 상황을 마주	복지 / 사회 안전	망	얼마전에 책을 한	큰 독을 막고 있는	침체되어있던 공	연 앞서 이야기했	듯, '레퍼런스'라	생각 좋았어요! 답변
7	6	인턴/아르바이트 경	대학교 1학년 때, C	제 가치관은 물론,	예상치 못한 챌린	여성, 청년, 기	후 우	솔직히 고백하자면	거울 - 저는 잘 배	우 대전/춘천/제주 등	도시의 사회혁신	은 주변에 대한 애
8	7	개인가정사로 인한	이 전에 제가 써놓	해당 꿈을 가진 후	C 성장을 만드는	것은 개발도상국	건강불	건강불평등 해소	는 가난한 아이들	의 꿈 제 분야 내	에서 말씀 제게	는 정말 중요한
9	8	소셜 미디어	학교는 쉬고 싶은	사회문제를 해결해	제가 선뜻 시작하	청소년, 청년, 여	성	저와 가장 많이	맞	모두가 성장할 수	있	가장 최근에 느
10	9	교내 활동 (학생회, 학교에서 사회혁신	사회혁신, 사회적	하기 싫은 일도 견	디 장애인, 복지 /	사회	장애인 봉사	를 오랜 든든한	주춧돌 - 사	코로나19 브리핑	당연하고 꼭 필요	한 사회혁신이
11	10	교내 활동 (학생회, 복지관에서 진행하	사회에 선한 영향	력 스스로 어려운	일을 아	동, 청소년, 노	인	아동과 청소년을	민	사회에 선한 영향	력 한양대학교 세	븐틴 많은 사람들
12	11	교내 활동 (학생회, 고려대학교 사회봉	군 제대 이후 루트	당 제 능력 밖에	있다	장애인, 일자리	부	최근 한국 사회	는	기 시대에 필요한	질문 올해 있었	던 지방선
13	12	봉사 활동 (국내, 하	저는 대학생 때 북	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진부하지만,	제가	여성, 주거 문제 /	저는 1인 가구로	신	이 질문이 정말	어	2018년에 있었
14	13	교내 활동 (학생회, 성당을 다니면서	나	4년동안 제가	관심	긍정적이든 부정	적	청소년, 청년, 여	성	예전부터 사회	에	관
15	14	봉사 활동 (국내, 하	고등학교 때 아동	복지 예술과 사회	를 잇는 불편할	때 성장한다	아	동, 청소년, 복	지	일하는 곳에서	아	동 예술과 사회
16	15	사회혁신수업 '페미	사회혁신의 방법	이	사회혁신이라는	것	다른 이들과	함께	동물 보호, 기	후 위	주변 사람의	영향을
17	16	동호회, 커뮤니티	를	저는 시사에	관심	이	토론 동아리를	운영	제	스스로 하고	싶	정치 / 사회
18	17	교내 활동 (학생회	한부 마지막	하기	프로젝트	경험의	후	내 역량	이상의	것	을	청소년



랜선 차 한잔 (E)

시트1

유00, 한양대 졸업/ 소셜벤처 매니저

“대학교 1학년 때, 이니스프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 때 이니스프리는 "그린어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공병수거를 비롯하여 환경 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얼핏 느끼면서부터 사회혁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 때는 어렵풋한 관심이었죠.

그러다가 영화 '귀향'을 보게 되었어요.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작고 아직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내가, 감히 무언가를 한다면 그건 어떤 형태일까 고민하다가 마리몽드를 알게 되었어요. 나의 소비가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데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마리몽드에 대한 애정은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그렇게 1년 정도 혼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쯤, 학교에 사회혁신융합전공이 개설됐어요. 사회혁신융합전공 1기로 학교 수업을 듣고, 같은 전공 친구들과 프로젝트도 하면서 점점 사회혁신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강OO,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사회혁신에 관심을 가진 계기

군 제대 이후 루트임팩트에서 진행하는 임팩트베이스캠프 7기에 지원하고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진 사회문제

최근 한국 사회는 저성장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혐오와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가장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정체성

시대에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연구자. 단순히 나의 질문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한번쯤 모두가 생각해볼만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고 싶다.

김OO,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사회혁신융합전공 학부생

성당을 다니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것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캄보디아의 톤렌샵 호수에서 저의 또래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와 그들의 차이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면서 부산의 인디고 서원이라는 인문학 서점에서 주최하는 캠프를 참여하면서 불의에 저항하는 레이철 코리의 영상을 보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제 주위에 돈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친구와 버디 활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여러가지 키워드중에 저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교육에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 전공도 교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제대후 코이카 월드프렌즈 미얀마 청년봉사를 갔다오면서 국제 개발에 간접적 경험을 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교의 사회혁신융합전공이라는 다중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동시에 SEN 이라는 사회혁신비즈니스 동아리를 들어가면서 사회혁신의 사례와 기업의 CSR/CSV를 공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중전공의 수업에서 실제 대기업 사회공헌팀,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와 협업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협업하면서 사회 혁신은 다양성이라는 가장 큰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사회혁신 공감 실습이라는 과목을 통해 아쇼카 펠로우들의 경험을 확인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공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교육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떻게 있을지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운이 좋게 신현상 교수님과 1학기에 공감 교육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고 미약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공감이라는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 들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2019 SK 하반기 신입사원 교육과정 인턴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핵심가치를 여기는 SK 조직 구성원들이 SV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완벽히 보기 힘들어서 그들을 진정성 있는 공감을 이끌어낼 교육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 4년동안 제가 관심있었던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것은 정말로 변화 하고 싶으면 저만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그리고 문제정의에 대한 솔루션을 내고 싶으면 저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혁신융합전공과 대외활동을 하면서 협력과 소통 다양성에 대한 큰 틀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제가 전문성을 쌓고 난 뒤에 엄청나게 큰 식견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회혁신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한 말은 우리가 당장은 변화를 줄 수 없어도 향후 5년뒤 10년뒤에 우리가 진정으로 다 같이 공감하는 문제에 같이 힘을 합치자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당장은 자신의 전공에 따라 경험을 쌓기 위해 나아가겠지만 우리가 함께 했던 경험과 신념들은 남아 있을 것이고 이는 앞으로 새롭게 닦치는 문제에 언제든지 다시 모일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OO,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센터/연구원

소보로 모델을 보고 이건 사회혁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주최한 행사에 윤지현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큰 감동이었어요. 사회 각계각층의 동료 여성들이 이루어내는 눈부신 성취가 그 어떤 것보다도 사회혁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성이 어떤 성취를 하기까지 아주 많은 장벽이 존재하는데, 그걸 뛰어넘거나 깨부실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혁신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 성취는 단순히 개인의 것으로 남지 않고 그 자체로 동료 여성들과의 연대가 되거든요. 도전하고 살아남는 여성이 많아질수록 변화에 가속도가 붙기도 하고요.

더 나은 것을 갈망하는 욕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욕구가 없다면 변화를 촉구하지 않을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냉소와 허무주의로부터 멀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서 뭐해, 달라지는 게 없어- 라는 태도는 결국 사람을 멈춰서게 합니다.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되(근거없는 낙관은 비관보다 더 나쁠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 라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기질적으로 타고 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작은 승리를 경험해봐야 길러지는 태도 같아요. 무엇이 됐든 바꾸려고 도전해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해볼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층에게는 더더욱이요. 우리에게 이런 안전망을 구축할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쓰다 보니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역시 사회혁신가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김OO,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사회혁신이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박한' 방법으로 사회문제가 해결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작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Impact Consulting Boot Camp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팀이 베트남의 식중독 문제를 베트남의 우체국의 배송 시스템과 연결시킨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우체국에서 배송할 때 사용하는 차량을 콜드체인으로 활용하여, 베트남 시민들의 자주 이용하는 시장에서의 식재료를 신선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니다. 그 팀의 발표를 듣고 '이런 게 사회혁신이지!'라고 느꼈습니다.왜냐하면, 우체국과 식중독 문제는 전혀 관련없다고 생각했는데, 우체국의 시스템을 식중독 해결을 위한 솔루션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인상깊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체국과 식중독 문제는 전혀 관련없다고 생각했는데, 우체국의 시스템을 식중독 해결을 위한 솔루션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인상깊었기 때문입니다.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오픈 마인드.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의견과 아이디어에 열려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OO, 해외재단근무/ 한양대 졸업

저는 수능 점수를 맞춰서 경영학을 전공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경영학 공부가 잘 맞고 재미있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이윤 극대화’, ‘효율성’ 등을 강조했던 경영학의 가치가 제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2016년 교내 봉사 오리엔테이션 강의 중 ‘비즈니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세션을 통해 ‘기부’, ‘봉사’ 외에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 (Social Impact)를 창출할 수 있고, 이를 넘어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재미있게 전공하고 있던 ‘경영학’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각 수업을 들을 때 수동적으로 듣기 보다는, “내가 배우고 있는 이 경영학 이론, 혹은 Case Study가 소셜 임팩트 창출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보다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저는 관련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셨던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참여를 하였고, 관련 동아리 활동들을 하며 ‘사회혁신’이라는 분야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제가 도시재생 사례 분석을 위해 출장으로 방문했던 파나마의 한 관광 지역에서 원래 동네 갱단 (Gang)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현지 관광 가이드로 채용하여 쓰는 소셜 벤처의 사례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사회혁신’의 모범 사례로 지금도 꼽고 있어요.

‘문제’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을 오히려 차별화된 ‘자산’으로 전환시킨 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주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데, ‘갱단으로 인한 불안정한 치안’의 원인인 ‘갱단’이 지역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강점을 활용한 자산으로 전환시켜 도시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를 이루어낸 것이 놀라웠습니다.

결국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잠재력’을 식별하는 능력이 사회혁신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혁신의 흔한 모델인: 취약 계층들의 ‘잠재력’을 식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소비력이 약한 빈곤층을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으로 해석하는 것, 폐기물들의 잠재력을 식별하여 재활용된 제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 모두 이 잠재력을 식별하는 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태현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과학자로서 엔지니어로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내 연구가 내 지식이 내 전문성이 사회를 위해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 좋습니다. 큰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벤처기업을 설립하였고 더불어 별도로 소셜벤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가들이 기업을 한다고 해서 굳이 비영리화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혁신도 하고 사회문제도 해결하면서 이익도 낼 수 있고 그 이익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기업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이익의 2/3는 의무적으로 환원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순수한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그 남길 수 있는 이익을 투자자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고 또한 함께 의기투합해서 더 많은 실적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 이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회혁신가가 되고 싶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기업, 사회문제해결형 기업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해결하고 그것이 시장도 확보할 수 있어 이익도 많이 남길 수 있고 참여한 직원들에게도 급여도 많이 줄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능력있는 인재들이 오직 이익을 위한 만들어진 대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서도 사회에 대한 봉사 내지는 사회 혁신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소셜벤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야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질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이 사회가 너무 건조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이고 회사 대표이지만, 퍼실리테이터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행복한 조직을 만들고 싶은 해피메이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상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친구들이 사회적기업 대회에 나간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때 도와주다가 엉겁결에 이쪽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버클리대에서 열린 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 에 아시아 대표팀과 함께 참여했을 때)

그전까지 비즈니스는 돈을 버는 도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경험 이후에 비즈니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사회적 기업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임팩트 생태계의 차세대 리더들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목적과 비전, 미션, 스킬셋을 키운 체인지메이커들을 양성하고 싶어요.

-> 김혜령 카톨릭대 사회혁신 교수 <hrlynnkim@gmail.com>

연구자의 노가다, []하기

8월 정기 미팅 – FGI 결과 공유

- 참석자: 아산나눔재단(팀장, 매니저), 임팩트리서치랩(교수, 연구원1, 연구원2), 진저티프로젝트(대표, 팀장)

진저티: Mature 그룹은 내가 남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Focused 그룹의 사람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왜 지쳤는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치열하게 고민 중인 것 같다. FGI의 질문은 온라인 서베이로 진행될 것을 테스트 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잘 대답할 수 있구나를 테스트 하는 의미도 있었다.

- 초입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Focused 그룹 사람들도 자신들이 어떻게 진입하게 됐는지, 언제 소진이 오는지, 언제 치고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서 인사이트가 많았다. 인풋을 주기보다는 내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필요하구나, 내가 무슨 길을 걸었는지 앞으로 무슨길을 걸을지 비슷한 사람들끼리 대화할때 진정성 있는 대화들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Mature그룹은 소진의 사이클을 겪어봤는데, Focused 그룹은 아직도 소진의 문제에 대해 전쟁중이구나를 느꼈다. 조직이 나를 소진시킬 것 같은 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재형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 아산: Focused 그룹 중에서도 Stage가 섞여있었다. 특히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은 열정적이고 긍정적이었고, 소진을 경험하지 않은 것 같았고. Mature는 소진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을 갖고 있었다.
- 아산: 이 연구는 결론을 내려가는 방향이 기존의 연구와는 정반대다. 사회혁신가라는 미지의 대상에 대해서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사회혁신가라고 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방식이 새롭다.
- 임팩트리서치랩: 진저티가 이 연구에 있어 다행이다. 우리가 혼자 했다면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 했었을 것 같다. 포지셔닝의 문제인데 우리가 뭘하는거냐, 어떤 연구와 다른지를 생각했는데 저에게는 균형이라는 키워드가 생각난다. 탑다운과 바텀업을 균형있게 보는 어프로치이고, 우리가 보는 관점은 생태계/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같다. 나무라는 것이 사람이고, 숲이라는 것이 커뮤니티로 볼 수 있다면 나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씨를 뿌리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위기를 극복했는지,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시간이 나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숲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가고 자리를 찾아가는게 중요한거고. 그래서 마인드셋의 문제인 것 같다.

질적 연구의 핵심: 연구자가 []다

과제

내맘대로 인터뷰

: 내 주변의 '사회혁신가'를 인터뷰해보고 그 경험을 정리해 봅니다.

- 주제,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 인터뷰 하고 싶은 공간, 시간, 분위기도 생각해 보세요.
- 사진과 오디오 기록도 남겨봅니다.

*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경험(계획한 것, 예상과 달랐던 것), 깨달은 점을 정리해주세요.

- 기한: 9월 25일(정오)까지 LMS에 올려주세요.

CHECK OUT

오늘, 어떠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궁금한 것,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SEE YOU
SOON
ANYWHERE.**

